

# 편집 후기



가을이 왔다고 '시몬!...'을 읊어대거나 '아! 가을...!'하며 낭만을 찾는다면 올해만 젊은 사람들로 부터 욕언어 먹기가 쉽상이라. 누렇다못해 시커먼 흙탕물로 많은 귀중한 것들을 엉망으로 해는 홍수는 제발 이번이 마지막 모습이길 기원한다.

'이전 여름호 방재와 보험에서 수방 대책에 대해 다루었는데도.....'하는 너무 기가 찬 자만심은 부러선 안되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이 책이 도움드릴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이전처럼 회복되겠지만, 무엇에겐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는 것만은 함께 잊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韓>

무사히 장마를 넘겼다 했더니 때아닌 집중호우는 서울 경기 일원에 엄청난 물난리를 안겨줬다.

한강의 대홍수, 수마가 활궤고 간 흔적이 너무 커 우리모두를 망연자실케 했다.

속된 표현으로 물구경, 쌈구경, 불구경을 3대 구경거리라고 했다지만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걱정스런 마음에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 천재나 인재냐는 나중에 따지고 우선은 신속한 복구와 구호로 상처치유에 주력해야함은 물론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하지 않을지.....

이미 가을은 영글어 가는데 거두워들일 것 없는 이들에게 마음속 깊은 격려를 보내며 심호흡을 크게 해보자. <建>

##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시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풍토 등 문예작품

### □ 보낼 곳

1150-01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 防災와保險 1990 / 가을호

<통권 제47호> 계간 · 비매품

등록/바-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1990년 10월 1일  
인쇄/1990년 9월 25일  
발행겸 편집인/박구일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창미문화사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